

- ①강서경 'Travel Box'
- ②이상권 '행복한 출근'
- ③박상미 '장면-이 공간'
- ④조재홍 '나는...'
- ⑤전영근 '자작나무숲'



작품으로 살펴보는 '일상의 소중함'

매일 각기 다른 모습의 일상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했다. 일하거나 휴식하거나, 모든 순간의 일상들이 요즘에는 선물처럼 다가온다. 정읍시는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가족사랑 기획전시 '소박한 선-물' 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5점을 준비한 이번 전시는 일상을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우리들의 삶 속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모든 날의 선물처럼 생각하며 각자의 풍부한 시각으로 여유롭게 감상해 보자.

▲행복한 삶을 위한 '소박한 선-물'
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 최초의 시립미술관에서 그간 다양한 기획전시를 진행해왔다. 특히, 가족사랑 기획전시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가정의 달에 맞춰 특별하고 다양한 주제로 기획되어왔다. 이번 '소박한 선-물'展 역시 '선물'이라는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문화로 소통하고 치유(힐링) 받는 정읍시립미술관의 브랜드텔링을 완성하고자 한다.

▲'소박한 선-물' 전시의 의미
이번 가족사랑 기획전시는 정읍을 방문하는 관람객들과 정읍 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감정들을 미술 작품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해소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했다.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현대의 우리 일상을 작가들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로 서양화와 한국화, 조소, 입체, 미디어 작품 등 총 45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국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유능한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그들의 작품세계를 공감하며 감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입장료와 체험행사는?
전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30분 전 입장 마감)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지

정읍시립미술관 '소박한 선-물'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5점 작가들 시선 해석

침 준수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개인 소독제 구비, 미술관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정해진 동선(개인 간 거리 유지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단체이용(관람)과 현장 전시 해설 서비스는 중단한다. 현장 전시 해설 서비스 대신으로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 해설 서비스로 자세한 전시 소개와 작품설명 등을 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락한 공간으로의 여행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전시연계 체험으로 2층 라운지에 빛나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선물이란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 적어보는 '당신에게 선물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시연계 체험으로 행복을 수집하는 '종이학 접기'도 운영한다. 전시연계 체험은 시간대별 이용(관람)인원을 조정해 진행하고, 상설체험은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시청(미술관)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 집중 방지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모든 관람객에게 예술로의 치유와 공감을
코로나 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이번 전시는 지금의 상황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있는 스스로에게 주는 자그마한 선물이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함에 감사함을 느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전시다.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온라인 전시 소개와 작품설명 서비스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seup.go.kr/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문화재단 '완주 한달살기', 일상적 예술경험 '마을 생기 가득'

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의 마을형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 '완주한달살기'로 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어우러져 거점 마을에 활기가 가득하다. 화산 수리마을 '문화이웃 뽀테(이하, 뽀테터)'는 양서준(활동명, 애오라지)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마음의 표현, 솟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을의 풍요와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며 솟대 만들기가 한창이다. 소양 읍곡마을 '문화창작공간 달빛품(이하, 달빛품)' 또한 백수혜(활동명, 미스백)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완주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식물 그리기, 마을 주변

에서 채집한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 만들기로 생기 가득하다. 소양 읍곡마을 '달빛품' 입주 작가 백수혜 씨는 "완주 마을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도시의 어느 클래스와 달리 일상성을 바탕으로 정형되지 않은 '완주한달살기'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으로 훨씬 더 다채로운 감성과 영감을 받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한달살기'는 화산과 소양 거점 대상 1차 참여 예술인에 이어 용진 순지마을 '아트커뮤니케이션 완산기'와 고산 읍내리 '아트스케이폴' 신규 거점 마을에도 2차 참여 예술인 입주가 시작되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영호남 현대미술 작가들의 '랑데뷰'

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 17일까지 도청사서 교류전

(사)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홍현철)는 5 '영·호남교류전 - 랑데뷰(Rendezvous: 만남)'라는 기획전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영·호남 지역의 역량있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올해 영·호남교류전은 13일부터 17일까지 도청사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

회원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랑데뷰(Rendezvous: 만남)II'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산업성이 난무한 미술계에 순수성을 되살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역 작가들이 함께 준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오프라인을 축소했지만 참여규모를 확대해 전북지역작

가와 광주·대구·안동·서울·전북 등 70여명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지역 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올해는 서울, 안동지역 작가들이 대거 합류해 5개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밀도 있는 전시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 영·호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작가들의 교류전을 통해 현대미술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전략을 제시, 아시아 문화중심 동력원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피고 한국현대미술의 뿌리와 근간을 정립해 현대미술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